



ISSUE PAP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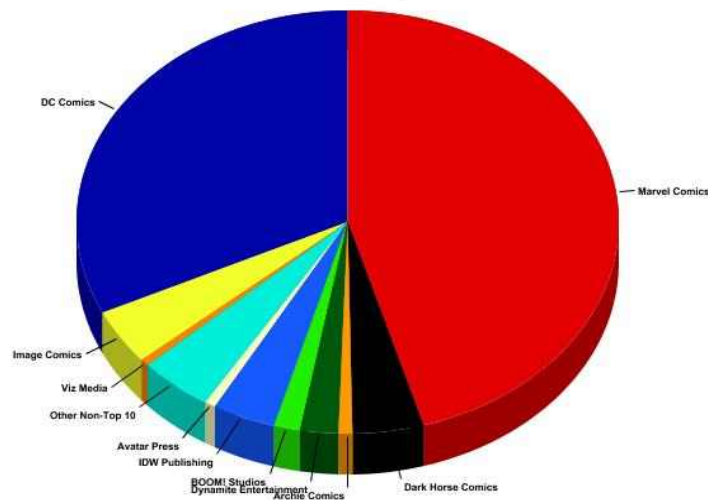
미국 만화시장 현황 및 한국 만화 진출 방향

I. 미국 만화시장 현황

□ 미국 만화시장 주요 추세

- 미국 만화시장은 3대 만화 출판사가 약 80% 점유
 - 마블(Marvel) : 시장점유율 41%, 스파이더맨, 헐크, X-Men 등
 - DC Comics : 시장점유율 30%, 배트맨, 슈퍼맨 등
 - Dark Horse Comics : 시장점유율 7%, 에이리언, 프레데터, 신시티 등

Unit Share - August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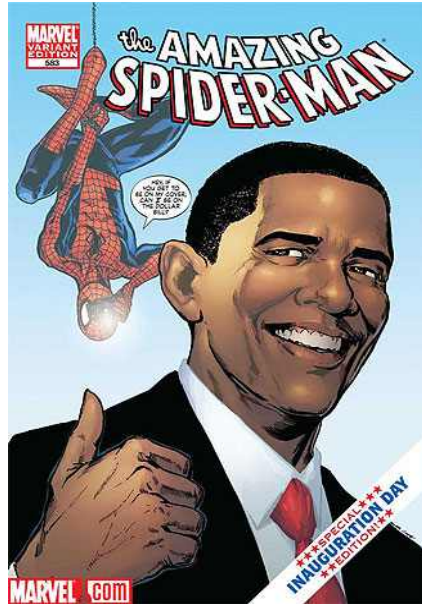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몇 년간 미국 만화시장은 전반적 침체기

- 오프라인 서점 매출 크게 하락
 - 미국 대형 서점 체인인 <보더스(Borders)>의 미국 전역 규모 축소
 - 대형 서점 체인인 <반스 앤 노블(BARNES & NOBLE)> 역시 규모 감소
-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화를 접하나, 거의 불법 사이트
 - <VIZ미디어> 이외에 합법적 온라인 만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
 - 만화출판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, <TOKYO POP> 같은 회사의 경우, 규모 대폭 축소

□ 미국 만화시장의 대안

○ 미국 만화시장 부흥을 위한 노력

- 시사(정치)적 스토리 발굴, 할리우드 영화 연계 등 노력 경주
 - 2009년 출판된 만화 '스파이더맨 #583'은 표지에 오바마 대통령을 모델로 내세워 500,000부 판매실적을 올렸음
 - '아이언맨', '배트맨' 등 만화와 연계된 영화 끊임없이 제작
- 게임과도 계속적 연계 진행
 - 게임과 연계 진행되고 있는 만화 역시 대부분 슈퍼히어로 만화로 '아이언맨', '슈퍼맨', '배트맨', 'X-men', 'Hulk', 'Marvel Ultimate Alliance', '스파이더맨', 'Fantastic Four' 등
- 이외,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사업 추진 등에 관심



○ 온라인, 디지털의 가능성

- BARNES & NOBLE과 Amazon.com에서는 e-book인 Nook과 Kindle을 출시하여 디지털 서적의 가능성 제시
- BARNES & NOBLE 과 미국 오프라인 서점 1위를 다투던 Borders 는 현재 파산위기
- 이는 빠르게 디지털 시장으로 뛰어든 BARNES & NOBLE 과 달리 늦게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
- 오프라인 서점의 불황은 한국 만화, 일본 망가의 진출 가능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

II. 아시아 만화의 위상과 전망

□ 일본 망가와 한국 만화의 판매실적

○ 망가의 주요 실적

- 일본 망가의 전성기였던 '05~'06년 베스트셀러급 망가 작품들은

150,000부 정도 판매

-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망가로 Rosario + Vampire, Yu-Gi-Oh!R, Naruto, The Gentlemen's Alliance, One Piece 등이 있음
- 2008년 경제 침체 이후 일본 망가 역시 평균 50,000부 정도의 판매실적 기록

○ 만화의 주요 실적

- 같은 시기, 베스트셀러급 한국 만화 작품은 50,000부 정도 판매
- 미국에서 출판된 대표적 한국 만화 작품으로는 박중기 작가의 Shaman Warrior가 있음
- 한국 만화 원제 '단구(斷口)'로, Dark Horse Comics를 통해서 출판

□ 앞으로는 디지털 판매 방식을 통한 진출 가능

○ 온라인 서점을 통한 아시아 만화 판매

-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서점이나 Borders나 Barnes and Noble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
- 이외에도 mycomicshop.com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만화 구입, 판매, 교환할 수 있음
- 오프라인 서점들이 크게 기울고 있는 현재, 한국 만화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, 스마트폰, 아이패드 등 이용 필수

○ 일본 망가의 경우, 불법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중심

- 'One Manga', 'Manga Fox' 등의 불법 스캔 사이트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주로 마니아층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
- 한국 만화는 마니아층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한국 만화 전문 불법 사이트는 현재 없음
- tenmanga.com이라는 일본 망가사이트에 한국 만화 섹션이 있으며 16종의 한국만화 보유

- 디지털 배급을 위해서는 판권문제 해결 시급
 - 한국 만화가 미국 디지털 시장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판권 해결, 전문 사이트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한 배급이 시급
 - 일본 망가의 경우 복잡한 판권이 얽혀 디지털 배급이 원활치 않음

III.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국 만화시장 공략

□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화 관람

- 미국 만화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람 가능
 - Marvel Comics와 DC Comics는 iPhone 및 iPad 용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공
 - Marvel Comics : Disney 자회사, Spider Man, Iron Man, X-Men 등 보유
 - DC Comics : Warner Bros. 자회사, Superman, Batman 등 보유
 - iTunes Store를 통해 권당 \$0.99로 만화를 구입할 수 있음
 - Marvel Comics의 경우, 연간 \$59.88에 만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정액 회원제도 운영
 - 이외 Comixology, Panelfly, iVerse과 같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화를 볼 수 있음



-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 Comixology
 - 2007년 설립되어 만화를 디지털 배급하고 있음
 - 아이폰 OS와 안드로이드 OS에 서비스 제공
 -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이트를 관람하고 만화를 구매할 수 있음
 - DC Comics, Vertigo, Dark Horse Comics를 비롯한 40여개의 만화 전문 출판사의 만화를 취급
 - 월 80여권, 연 1,000 여권의 새로운 만화를 소개
 - 대부분 권당 \$0.99~\$2.99의 유료만화, 일부 무료만화도 제공
 - 현재 Comixology에 아시안 만화는 일본 망가 'Hetalia'가 유일

- Comixology 이용실적
 - 2010년 Comixology 어플리케이션은 iTunes를 통해 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
 - Top 10 book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

IV. 시사점

- 오프라인 서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e-book 형태의 만화 개발 필요
-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만화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만화 인지도 상승을 위한 노력 필요
 - 한국 만화를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바로 피칭하기보다는 이미 파트너십을 형성한 출판사와의 협업 가능
 - 또한, 한국 만화 통합 브랜드화 등을 통한 규모 확보 가능
- 더불어, 만화 콘텐츠 유료화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및 디지털 저작권 이슈해결 방안 등이 먼저 필요